

# 2025년 3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대전MBC

## 1. 회의개최

구분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25.3.25.	대전MBC 4층 회의실 (대면회의)	6/10	2	2	10	○		

### ○ 회의 참석자 명단

#### ① 시청자위원 명단

손병우 위원장, 박주영 부위원장, 장래숙 위원,  
이진희 위원, 김미화 위원, 정성일 위원

####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 : 이은표 경영국장, 김지훈 보도국장  
- 경영진 외 : 김학철 기획제작부장, 이재근 실무담당

##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3	6	-	-	9	-	9

### 나. 사업자 반영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합계
건수	9	-	-	9

### 다. 전월(2월)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김하늘 양 관련 명칭> '김하늘 양 피살사건'이라고 계속 보도되면서 이름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 뉴스를 접하는 지인들의 충격이 이중삼중이겠다는 생각이 듭	딸의 이름을 붙인 법안을 만들면 좋겠다는 취지로 아버지가 이름을 공개해서 계속 썼는데 가급적이면 '초등생 피살 사건'으로 고민하겠습니다 <25. 3월 조치>	'25.2월
보도	<안전한 학교 관련 보도> 교사의 정신 건강 문제와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대한 지속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우울증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연결 짓지 않도록 기사를 쓸 때 조심하고 있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관심 갖겠습니다. <25. 3월 조치>	'25.2월
보도	<갈등 해결을 위한 보도> 김하늘 양 관련 후속보도를 보면서 갈등이 발생하는 모습들이 보이던데 사회적 합의가 잘 이뤄지도록 지속적인 보도 필요	가해 교사가 중환자실에서 산소 호흡기를 떼서 조만간 대면 조사 결정을 할 예정인데 진술서를 받아보면 사건에 대한 정확한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함 <25. 3월 조치>	'25.2월
보도	<지역 의료 보도 관련> 지역 종합병원에 이직률이 많고 신규 의료진이 충원되지 않아 의료계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 부분을 심층 취재해 주기 바람	현재 크로스 오버 콘텐츠로 유튜브와 뉴스에 활용하기 위해 지역 의료 관련 디지털 콘텐츠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음. <25. 3월 조치>	'25.2월
보도	<뉴스 제보 및 채택 > 뉴스 제보가 어느 정도 들어오고 뉴스로 채택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함	전화 제보는 하루에 두, 세건 정도 들어오고 있고 제보의 주 경로는 카카오톡인데 대부분 팩트 체크를 해서 가급적이면 뉴스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25. 3월 조치>	'25.2월
교양	<소년소녀합창단 활성화> 소년소녀 합창단과 청소년 오케스트라 초대석을 진행했는데 대전MBC의 자부심만큼 활성화됐으면 함.	프로그램을 통해 소년소녀합창단과 청소년오케스트라 소식들을 자주 다루도록 하겠음 <25. 3월 조치>	'25.2월
교양	<지역 문화계 소식> 대전지역 문화예술계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지 않는데 박석신 화가 등 소개가 좋았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함.	눈이 즐거워지는 문화가 소식들을 자주 다루도록 하겠음 <25. 3월 조치>	'25.2월
교양	<시시각각 주제 > 금강과 보문산 환경 문제, 입법부 및 행정부 세종시 이전, 대전 트램, R&D 예산 등 지역의 특색 있는 주제에 대해서 고민해 주기 바람	말씀해 주신 환경문제, 세종시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문제, 대전트램, R&D예산 문제 등은 <시시각각>을 통해 많이 소화 하겠음 <25. 3월 조치>	'25.2월
교양	<의정갈등 토론 관련> 의정갈등이 의사계와 정부간의 갈등인데 실제 정부쪽 패널이 없어서 토론이 답답한 부분이 있었음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설외에 한계가 있었던 점은 미흡했음. 더 노력해서 보강 하겠음 <25. 3월 조치>	'25.2월
교양	<토론 화면 그래픽 구성> 수치를 얘기할 때 도표나 그래픽을 활용하지 않고 말로 설명하니까 답답한 생각이 들었음	토론의 주제들을 단락단락 드리고는 있는데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고 제작과 송출사이가 짧아서 준비에 한계가 있지만 더 보강하도록 하겠음 <25. 3월 조치>	'25.2월
교양	<대권도 행사 중계 관련> 대권도 행사를 중계하면서 진행자가 외국 참가자 이름을 부르지 않고 나라만 언급하던데 이름을 중심으로 불러주었으면 함	외국 선수 이름이 너무 길어서 발음이 어렵고 잘못 발음하면 다시 편집해야 해서 그렇게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름을 많이 담도록 하겠음 <25. 3월 조치>	'25.2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임기)
		해당사항 없음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2025년 3월에 집계된 시청자 불만사항 회의 전 고지	○
시청자위원 및 임원진이 함께 공유하는 온라인 대화방 개설	○

4. 기타사항

-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대전MBC 홈페이지 공개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위원별 상이)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임기)*
위원장	손병우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사)한국언론정보학회	언론단체	23.05.01~25.04.30
부위원장	박주영	대전지방변호사회 부회장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23.05.01~25.04.30
위원	장래숙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대전광역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단체	23.05.01~25.04.30
위원	김영진	사회적협동조합혁신청 이사장	대전청년내일센터	소외계층대변	23.05.01~25.04.30
위원	이인복	원도심문화예술행동 사무국장	원도심문화예술행동	문화단체	23.05.01~25.04.30
위원	윤지석	대전광역시시의사회 부회장	대전광역시시의사회	과학기술단체	23.05.01~25.04.30
위원	이진희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협회장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인권단체	23.05.01~25.04.30
위원	김미화	대전YWCA 가족센터 소장	대전YWCA	여성단체	24.05.01~26.04.30
위원	이성교	재능나눔 징검다리 회장	재능나눔 징검다리	청소년단체	24.05.01~26.04.30
위원	정성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기획홍보팀장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노동단체	24.05.01~26.04.30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CCTV 영상 보도> 화면에 영재완 교사의 얼굴과 봉지를 들고 다니는 CCTV 영상을 함께 보여줘서 끔찍한 생각이 들었음	회의록 첨부	○		
보도	<자막과 내용 불일치> 자막에는 '경력 단절 탓 남녀 임금 격차'라고 했는데 내용은 돌봄 일자리에 대한 저임금 저평가 문제로 이해함	회의록 첨부	○		
보도	<뉴스진행자 호흡> 새로 투입된 앵커의 발음은 좋는데 호흡이 빨라서 전문적인 용어나 처음 듣는 단어는 듣기가 어려웠음	회의록 첨부	○		
교양	<자막 오타> '미국 제재 뚫고' 라는 자막에서 제재에 오타가 났는데 치명적인 실수로 안타깝게 느껴짐	회의록 첨부	○		
교양	<전문 용어 설명> 답시크 관련해서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말씀해주셔서 좋았는데 영어 용어가 계속 나와서 집중력이 떨어짐	회의록 첨부	○		
교양	<2025년 연중캠페인> 2022년부터 연중캠페인이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데 2025년은 아직 올라오지 않아서 어떻게 되는지 검토를 부탁함	회의록 첨부	○		
교양	<토론 패널 구성> 현재 재판이 늦어지면서 피로도가 높다는 토론을 하는데 법조인은 없고 정치인들만 나와서 각 당의 입장만 주고받아서 차별성을 못 느낌	회의록 첨부	○		
교양	<인생내컷 출연자> 인생내컷의 주인공으로 출연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섭외하는지 궁금함	회의록 첨부	○		
교양	<유성장터 만세운동 관련> 유성장터 만세운동이 대전 최초의 만세운동으로 방송해 준 것은 훌륭했음. 그러나, 재현식을 유성의병사적비 앞에서 하다 보니 관계자들이 유성장터 만세운동이 을미의병의 효시라는 시간이 뒤집힌 발언을 하는 데 2개의 기념식이 분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방송해 주길 바람.	회의록 첨부	○		

## 2025년 3월 대전MBC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25년 3월 25일(화) 오후 4시
- 장소 : 대전MBC 4층 대회의실

- 시청자위원회 참석자 : (총 6명)  
손병우 위원장, 박주영 부위원장, 장래숙 위원,  
이진희 위원, 김미화 위원, 정성일 위원

- 회사 참석자 : (총 4명)  
이은표 경영국장, 김지훈 보도국장, 김학철 기획제작부장, 이재근 실무담당

- 회의록 전문

### 이은표 경영국장

지금부터 3월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 10분 중에 6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지난달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시청자 의견은 배부해 드렸는데요. 7건입니다. 홈페이지 수정 요청 1건 그리고 기타 문의와 요청사항이 6건입니다. 전체적으로 답변은 충분히 달았는데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종재 사장님을 대신해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년 동안 수고해 주신 시청자위원 7분이 다음 달 마지막으로 임기를 완료하시게 되는데요.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관심 부탁드립니다. 손병우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손병우 위원장

저희가 대전MBC 시청자위원으로 활동한 지 다음 달이면 만 2년의 임기가 끝납니다. 그동안 대전MBC 프로그램들을 꼼꼼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살펴보고 제작진들과 대화를 나누고 하면서 그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임기를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프로그램 모니터링하고 임기 이후에도 대전MBC 프로그램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짧지만 아주 알찬 내용으로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위원님들께서 지난 한 달 동안 살펴보신 내용을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장래숙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래숙 위원

대전MBC 홈페이지에 2025년 MBC 연중캠페인이 있더라고요. ‘당신이 네모입니다’. 2022년 3

월 1일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당신이 주인공입니다’로 3년 동안 게재돼 있더라고요. 2025년에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지 아니면 아직 프로그램을 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2년 동안 쪽 보니까 너무너무 괜찮은 프로그램이더라고요.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저는 ‘당신은 네모입니다’를 ‘MBC는 사랑입니다’로 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손병우 위원장

따뜻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박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 박주영 위원

<시시각각>을 봤습니다. 답시크 빛과 그림자 편을 봤는데요. 대덕 연구단지가 가까이 있는 지역답게 빠르게 2월 15일에 어플 다운로드 금지한 게 나왔는데 바로 3월 2일에 <시시각각> 주제로 삼아서 방송에서 논의해 주셔서 되게 좋았습니다.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고, 대덕연구단지 쪽에 있는 분들 그리고 개인 정보, 안보와 관련되다 보니까 군사학과 교수님도 나오셔서 안보에 대해서도 균형 감각 있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도 이 답시크가 연구단지 과학자들 사이에서 어떤 부분이 크게 주목받고 있는지를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말씀해 주셔서 일반적으로 다들 답시크 놀랍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뭔지 조금 들었고, 기존의 AI와의 차별점에 대해서도 쉽게 설명해 주시는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전문 용어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나중에 집중력은 떨어지더라고요. 어렵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 옥의티 하나는 오타였어요. ‘미국 제재 뚫고’ 중국이 답시크를 이렇게 했다는 거였는데 ‘제재’에 오타가 났습니다. 그 부분은 치명적인 실수가 아니었을까 안타깝게 느껴졌고요.

탄핵 현재 재판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한 방송편을 보면서 저희 법조인들이 느끼기에 어느 문구를 봤었는데 현재 우리나라 사회가 ‘법으로 풀어야 될 걸 정치로 풀고, 정치로 풀어야 될 걸 법으로 푼다’ 라는 표현이 저는 딱 맞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이번 출연진들 중에서도 현재 재판에 대한 논의지만 법조인은 아무도 없었어요. 법조인들이 이런 데 나와서 얘기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사실 부탁받으면 거부하거든요. 쉽지 않긴 한데 국민의힘 또 민주당에서 각각 한 분씩 나오셔서 결국 각 당의 입장 또 진영의 입장을 서로 주고받고 있어서 주제 자체도 이 탄핵 찬반에 대한 피로도가 늘어나고 있지 않느냐는 게 질문이었는데 보면서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 하는 질문을 잠시 했었습니다.

### 손병우 위원장

감사합니다. 이번엔 이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진희 위원

<시시각각>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주제가 다양하고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았어요. 말씀하신 딥 시크도 그렇고, 탄핵 관련해서는 계속 늘어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상황들이 바뀌니까 준비하시면서도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귀농 귀촌 대안’ 내용들을 같이 다뤄주신 건 다양한 주제로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탄핵 정국과 관련된 내용들이 뉴스를 장식하고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이슈들을 많이 다뤄주시면서 균형 잡게 해준 부분은 굉장히 감사드리고 힘드셨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월 18일 뉴스데스크에서 의원들이 시국상황에 본연의 입법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수치화해서 보여준 것은 굉장히 잘 와 닿았어요. 정치적으로 어떤 것을 푸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분들이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 숙지할 수 있게 해준 부분은 인상 깊게 봤습니다.

<인생 내컷>에서 택견 등 대전에서 두 분을 3월에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분들을 찾아내시는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택견은 전통 무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즘 쇼츠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에서 어려우셨을 텐데 이렇게 긴 내용으로 사람의 삶을 보여줘서 얻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서 조금 정확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좋은 분들을 발굴해 주신 부분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미화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김미화 위원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오랫동안 몸담은 고수를 어떻게 찾아내는 건가. 지역에서 특히 여성으로서 택견 지도자 전수까지 받고 활동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를 그 안에서 했거든요. 저는 3월 8일이 여성의 날이라 여성 관련된 뭔가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가까이 접해보지는 못하지만 이분이 학교에 가서 어린이와 선생님들도 가르쳐주고 하는데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산속에서 수련하는 모습을 찍은 부분은 무림의 고수가 수련하는 모습처럼 보여서 멋있게 보였고, 특히 그 분의 남편이 굉장히 외조를 잘해주신 것 같은데 엔딩 컷을 남편분하고 손을 잡고 가는 뒷모습을 보여주셔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성이 밖에 나가서 전문적인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데 동반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고, 또 그런 모습을 조명하지 않았을까 의미를 부여하면서 재미있게 잘 봤고요.

<시시각각>에서 주제가 2025년 교육 변화가 혁신이나 줄속이나 인데 줄속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더라고요. 특히 늘봄 교실에서 현관까지 인계하는 것을 대전에서는 자원봉사자를 세워놨는데 이것이 만족할 만한 대안인지 점검이 필요한 부분을 콕콕 짚어서 패널들이 설명을 잘 해 주셨고, 거기에서도 현관까지 학생들을 데리러 태권도학원 선생님이 차를 끌고 갈 수 있는데 그러면 태권도 학원 차량에 남겨져 있는 학생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실질적으로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AI 교과서가 효과성이 미비할 것 같으며 전국에서는 30%했는데 대전은 20%밖에 하지 않았고, 이게 완성도도 부족한데 계속해야 되는가 하는 지적들이 있지만 교육청에서는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으니 어떤 제도든 처음 시도할 때는 반발이 있다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뭔가 궁색해 보였습니다. AI 교과서는 사전 시범 사업이라든지 준비가 더 필요했는데 너무 밀어붙이지 않았는가 시청자의 시각으로도 교육에 대해 더 관심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뉴스 중에서 요청드리고 싶었던 것은 명재완 교사의 얼굴이 공개됐어요. 3월 21일 금요일 뉴스에서 CCTV 동선으로 그 분이 어디를 들어갔다 봉지를 들고 나오는데 그 사람을 동그라미 그려서 화살표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얼굴이 크게 나왔거든요. 얼굴만 봐도 끔찍한 생각이 드는데 봉지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CCTV 장면을 보니까 굳이 안 보여 줘도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미 얼굴까지 공개돼서 보고 있는데 그 동선까지 보여주니까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혹시 영상 보여주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달리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3월 10일에 ‘경력 단절 탓 남녀 임금 격차’ 자막이 나오면서 일자리의 질이 안 좋고 저임금 노동에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고, 특히 전북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그래프로 자세히 다루어 주셨어요. 근데 내용은 돌봄의 가치가 중요하지만 돌봄 일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저임금과 저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 개선도 필요하고 임금도 올려갈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했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여성분들이지만 젊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해도 임금이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경력 단절 탓이라고 쓴 자막을 오히려 성별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부분은 돌봄 노동에 대한 저평가 저임금의 문제인 것이라고 해 주시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월 24일에 한주희 아나운서가 새로 아침 뉴스를 하시는 것 같아요. 발음은 좋은데 호흡이 조금 빨라서 전문적인 용어나 처음 듣는 단어들 들을 때는 못 알아듣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지는 아나운서 정도의 템포로 하면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감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손병우 위원장

다음은 정성일 위원님 의견입니다.

정성일 위원

3·1절이 있는 3월달에 독립운동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이 제작된 것 같아서 인상깊은 달이었습니다. 3월 14일 유성장터에서 열린 유성장터 만세운동 재현행사가 “대전 유성시장·인동에서 독립만세운동 재현 행사 열려” 제목으로 보도되었고, 3월 20일에는 <오늘M>에서 현장의 모습을 잘 전달했습니다. 더불어 3월 23일 <인생내컷>에서 광복회 충북지부장의 이야기를 다룬 것도 인상 깊었습니다.

유성장터 만세운동과 관련하여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성장터 만세운동이 대전 최초의 만세운동으로 정확히 기록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기와 의미가 다소 차이가 있는 을미의병 기념식과 유성장터 만세운동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한동안 대전지역 최초의 만세운동이 3·16 인동장터 만세운동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전 최초의 만세운동은 3·16 유성장터 만세운동이고, 인동장터 만세운동은 그로부터 11일 뒤인 3월 27일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부터 3월 16일을 기념했던 대전 동구청은 사실이 확인되자 행사명에서 3·16을 제외했지만, 여전히 3월 16일을 앞두고 재현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KBS는 여전히 인동장터 만세운동을 3월 16일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대전MBC가 뉴스 보도에서는 인동장터 만세운동에 앞서 유성장터 만세운동을 보도하고, <오늘M>에서 유성장터 만세운동이 대전 최초의 만세운동이라 알린 점은 그간 왜곡된 사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훌륭한 방송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역사왜곡을 바로 잡는데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여 보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M> 방송에서 광복회원과 구청장, 보훈처장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리송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을미의병과 기미만세운동이 혼합되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을미년은 1895년, 기미년은 1919년으로 24년이라는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유성장터에 만세운동과 관련한 사적비는 없고, ‘을미의병의 효시 유성의병사적비’라는 비석이 있다 보니, 만세운동 재현식의 마무리가 그 곳에서 이루어지는데, 을미년은 대한제국이 시작되기도 전인 조선 시대이기 때문에 “대한독립 만세”의 구호와와는 어색한 비석입니다. 이러한 시기와 성격이 다른 두 역사를 함께 기념하다보니, 관계자들도 “유성장터 만세운동(1919년)은 을미의병(1895년)의 효시”라는 시간이 뒤집힌 발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방송을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도 자세히 방송을 본다면 이상함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대전MBC의 유성장터 만세운동 관련 보도는 지역사를 바로잡는 효시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성장터 만세운동이 대전 최초 만세운동이라는 점과 유성장터 만세운동 기념비 건립 및 을미의병 기념식과 만세운동 재연식을 분리하여 역사를 정확히 쓰는 데 관심을 가지고 보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다큐M> ‘기억의 봄, 3.8민주의거’를 봤는데 2022년에 방송한 것을 재방송 했나 봐요. 3월 24일에 방송을 했는데 의미 있는 다큐를 시의적으로 3월에 다시 편성한 것은 매우 적절했다는 생각이 되고요. 시민 배우들을 캐스팅해서 영화로 제작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다큐에서 재연한 부분이 영화 속 장면들을 같이 공유한 건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영화 제작과 <다큐M>에서 소화한 부분과 그게 어떻게 대전MBC와 관련이 있었을까 궁금해졌어요. 이게 영화였으면 제언드릴 부분이 영화쪽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고 대전MBC에서 만들었으면 MBC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관계가 궁금해졌는데요.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당사자들이 인터뷰할 때 그 인터뷰 내용과 드라마타이즈 된 재연부분이 일치하면 좋은데, 이를테면 인분을 뒤집어쓰고 라는 말씀을 하실 때 경찰들이 시위하는 고등학생들한테 인분으로 대치를 했다는 얘기가 그런 부분이 재연 영상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앞으로 다큐에서 드라마로 재연할 때는 인터뷰 내용과 영상을 일치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시청자 위원님들의 말씀에 대해서 MBC쪽에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김지훈 보도국장

<시시각각>에 큰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프로그램 품질이 옥의 티 하나 때문에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항상 주의를 하고 있는데 실수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본다고 보는데 놓쳐지더라고요. 다시한번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답시크 등 관련해서 전문 용어가 있을 때는 자막으로 용어를 설명해 주는 포인트를 잡으면 좋는데 그것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특구에 AI프렌즈 라는 정부 출연연 연구기관마다 AI에 관심 있는 과학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AI 관련 콘텐츠에 대해 많이 협업을 해 주시는데 방송에 나오셔서 시청자들에게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해 주시고 있고요. 향후에도 비슷한 사례나 주제가 생기면 그분들과 협업해서 콘텐츠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가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아이템을 선정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금요일 녹화인데 금요일에 선고가 되면 주제를 어떻게 바꿔야 되나 매번 고민하고 있고 이번 주도 고민이고요. 또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법률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

서는 국민의힘이 출연을 거부하고 계셔서 서로 상호 세팅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법률 전문가 쪽으로 섭의를 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소영 기자가 보도했던 탄핵 정국 속에 국회의원들의 역할은 저희 내부에서도 이걸 좋은 아이템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명재완 교사 얼굴 공개 관련해서 말씀하신 영상은 흥기를 구입해서 봉지를 들고 가는 겁니다. 그게 다시 떠오르셔서 기본을 안 좋게 해드렸던 것 같은데 앞으로 편집에 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력 단절 관련 보도는 저희가 기사 내용을 보고 제목을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데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내용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목 챙기는 일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신 <기억의 봄>은 제가 2022년도에 직접 제작한 작품이고요. 3.8민주 의거가 1960년도에 발생한 일이고 그 당시 자료사진이 5장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로 어떻게 영상을 만드나 고민을 많이 했고, 애초에 연극으로 기획했다가 어려워져 지역에서 독립영화 하시는 감독님을 섭외해서 드라마 타이즈로 재연영화를 하고 싶다고 했고, 또 이것을 다큐멘터리에 쓰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제작비를 대고 영화를 같이 만들고 영화는 영화대로 별도로 시사회를 했습니다.

저희는 콘티를 짜서 영화로 연출된 이런 장면들이 필요하다고 했던 거예요. 저예산으로 만든 독립 영화라서 영성하게 나온 것 같고 인터뷰 장면이 없습니다. 그냥 완전히 극영화로 만들었고 장면을 따다가 그 당시에 생존하고 계신 지역의 선배님들 모셔서 회상하시면서 영상으로 재연하는 것을 구성했던 건데, 그 이후에 3.8 민주주의거기념관도 생겼고요. 여러 가지 지역 민주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관련 콘텐츠를 더 많이 만들어서 지역의 이미지를 고양하는 역할을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한주희 아나운서는 신입사원인데 월요일 뉴스투데이부터 투입됐고요. 뉴스 투입이 첫날이다 보니까 속도감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호흡에 관련해서는 소속부서인 편성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희 위원  
유튜브 짝은 걸 봤는데 발음도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잘 봤습니다.

김지훈 보도국장  
정성일 위원님 말씀해주신 '유성장터 만세운동'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도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을 참고해서 '유성장터 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지역 만세

운동의 체계화를 위해 착실히 준비해서 내년 보도부터는 보다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뉴스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기획제작부장  
연중캠페인은 2022년부터 진행을 계속하고 있었고요. 22년도에는 '고마워유 같이 가유', 23년도에는 '힘을 내유 같이 가유', 작년에는 '당신이 주인공입니다'라는 주제로 20여 편을 제작했고, 올해는 '당신이 네모입니다'라고 연중 캠페인을 정했는데 제작시스템이 전략기획실과 편성국이 협업하는 구조입니다.

협찬주가 섭외되면 협의해서 제작은 편성국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는 아직 제작을 한 편도 못했습니다. 연중캠페인 제목만 정해 놓은 상태고, 전략기획실에서 섭외한 협찬주가 나오는 아이템으로 제작하는 캠페인이 하나 있어서 지금 나가고 있고요. 공식적으로 제작한 연중캠페인은 아직 없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안 된 상황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작의뢰가 넘어오면 제목을 네모라고 정해 놓고 몇 번 바꿔서 제작하겠다는 의미인데요. '당신이 주인공입니다'가 될 수도 있고, '당신이 사랑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매달 아니면 매회 마다 아이템을 바꿔서 가변적으로 쓸 수 있게 정해 놓은 제목으로 다시 시작하면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도 하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인생내컷>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택견은 대전 유성 쪽에서 전수관을 운영하시는 여성 전수자 분을 섭외해서 진행했고, 아이템을 찾는 건 PD를 비롯해서 담당 작가들과 발품을 팔기도 하고, 주로 인터넷 서치도 많이 하면서 촬영을 다니다가 개인적으로 추천 받은 분들을 섭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출연자를 찾는 게 관건이고 휴먼 다큐라서 출연자가 매력이 있어야 소구력이 있기 때문에 좋은 아이템을 찾으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작진이 교체됐는데 1년 반 정도 외주 감독님이 진행하시다가 그만두셨고, 베테랑인 채원식 감독이 첫 제작한 다큐가 택견 편입니다. 연출 경력이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 연출들이 와 닿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주희 아나운서는 신입사원이지만 포항MBC에서 1년, 안동MBC에서도 6개월 정도 아나운서 근무 경력이 있습니다. 경험이 많아서 안정적으로 진행을 하기는 하는데 첫날이라서 긴장해서 빨라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호흡을 천천히 가다듬고 전달력에 집중해서 읽어달라고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 뉴스데스크에서 '스포츠 토크'이라고 스포츠 톤으로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성일 위원님 말씀하신 <오늘M>에서 대전에서의 만세운동 관련해서 지적하신 내용은 깊이 동감합니다. 대전에서의 만세운동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면밀한

확인 이후 추후 제작시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국애족의 본보기라 할 만한 을미의병과 이와 관련한 유성에서의 의병운동은 역사적 상징성에 있어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3.1운동과 궤를 같이하고 있어 인터뷰 중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향후 제작시 진행자에게 사전 교육을 통해 역사적 사실에 대한 바른 이해를 주고, 방송 진행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M> ‘현장속으로’는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우리 지역의 주요 화제의 현장 소개, 또는 시민들의 건전한 의식 함양을 위한 방송의 공익적 내용을 소개하는 코너인데 이번 현장속으로는 후자에 해당되는 내용이었고, 그 방향성에서는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에서도 고증이나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 방송 제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은표 경영국장

추가로 질문 사항 없으신가요? 그러면 손병우 위원장님께서 마무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오늘도 공사다망하신 가운데 3월 시청자위원회를 했는데요. 알찬 모니터 말씀 주셨고 저희가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역할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과정에서도 힘드시겠지만 제작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표 경영국장

오늘 내일 정도에 발표가 나겠지만 전파진흥협회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에 1차를 다 통과했거든요. 작년 <라라 사운드>처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돼 있고, 또 좋은 다큐멘터리로 시청자들에게 다가갈 거니까 기대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프로야구도 라디오 중계를 시작했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 이지만 시청자들에게 더 다가가는 의미로 중계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반 고흐전 전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3월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